

# 북한의 교원양성제도와 고등교육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손 계 림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



## 1. 북한 교원의 현황

북한에서 교원은 공산주의 혁명의 계승자를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지위도 보장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 테제'에서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 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 북한의 고등교육

1.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과 유형
2.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 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3. 김일성종합대학과 북한의 권력 엘리트 양성
4.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과 김책공업종합대학
5. 북한의 교원양성제도와 고등교육
6. 고등전문학교와 직업기술 교육
7. 공장대학과 성인교육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 상태가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원 양성과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

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고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지도방침을 올바르게 관철하고 교원을 존경하며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원의 정치사회적인 지위를 제고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교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교육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들 스스로 자신의 품성과 자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1)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북한에서 교원들은 ‘직업혁명가’이며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의 ‘원종장’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교원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먼저 교원들은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수상 혜택을 받고 있다. 교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 각급 인민위원회부터 최고 인민위원회까지 참석하여 국가 정책을 토의하고 당의 방침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교육사업에 오랜동안 종사하고 현저한 성과와 특수한 공로를 세운 교원에게는 ‘노력영웅’, ‘인민교원’, ‘공훈교원’ 등의 칭호를 수여한다. ‘공훈교원’은 보통 15년 이상 교직에 종사하고 훌륭한 성과가 있는 교원들에게 수여하며, ‘인민교원’과 ‘노력영웅’은 보통 20년 이상 교직에 근무하고, 아주 특수한 공헌이 있는 교원들에게 수여한다. 이 밖에도 교육사업에서 큰 공헌을 한 교원들에게는 ‘김일성상’을 수여하는 등 여러 가지 상이 있다. 이러한 상을 받은 교원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며, 동시에 대우도 아주 높아진다.

북한에서는 교원들의 대우를 높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 기간이나 전쟁후 전국의 경제가 지극히 곤란한 시기가 아니면, 경제건설 발전시기를 막론하고 북한에서는 각 시기마다 교원 지위를 개선할 것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여 교원들의 양식 공급량과 생활용품의 공급 기준을 다른 기관보다 한 급씩 올려 주었다. 농촌 지역의 교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주택과 밥을 나누어 주고, 필수품과 부식들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교원들이 공급받는 생활 필수품을 제 때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국 각 도·시·군에는 ‘교원상점’을 설치하거나 ‘교원전문매대’를 설치하였다.

교원들이 근심 걱정 없이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지원 부문과 관련 부문에서는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여자 교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자 교원이 많은 학교에는 교원수를 35% 비율로 증원해 주고 있으며, 결혼한 여자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에는 1.5배의 교원 편제를 증원해 주는 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교원 자녀가 5명 이상이 있는 학교에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하고 있다. 교원들이 물건을 사려면 상점에 갈 필요없이 공급카드와 돈을 학교의 총무에게 미리 지불하면 당일 퇴근 전에 상점 직원이 물건을 갖다 준다.

교원들은 북한에서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다. 이발소에는 교원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교원이 이발하러 들어가면 우선 자리를 비워주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분배에서도 교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평양시에는 교원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교원들의 월급은 같은 학력을 가진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높다. 예를 들어 보육원과 교양원의 평균 월급은 보통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일단 사범계통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배치받은 교원들은 동등한 학력을 가진 다른 직장인들에 비하면 월급이 20% 정도 더 많다. 그뿐 아니라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교원들은 다른 기업에서 없는 보조금을 받는데,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에서 5년 이상 교직에 근무하면 월급에 추가하여 연한가급급이라는 보조금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근무 연한에 따라 계산하는데, 최소한 매달 8원(북한돈)씩 지급하며 보통 15원부터 20원까지이다.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에서 학교사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교원에게는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북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원들의 학력은 사범대학 졸업(4년제, 고등중학교 교원)과 교원대학 졸업(3년제, 인민학교 유치원 교원) 수준에 달하고 있고, 점점 학력이 높아져 준박사 학위를 얻은 교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 교원의 자격제도

북한에서는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한편으로 교원양성 교육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자격제도를 개선하였다. 1967년 9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교원의 양성제도를 정착시켜 사범대학과 사범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교원의 학력제도, 교원자격 검정제도와 교원 진급 제도도 규정하였다. 북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원의 자격은 다섯 단계로 나누는데 각 급수별 월급은 아래와 같다.

급 수	월 급(북한돈)
1급	110 ~ 120원
2급	100 ~ 110원
3급	90 ~ 100원
4급	80 ~ 90원
5급	70 ~ 80원

여기에서 3급 이상은 '자격교원'이라고 하며,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들에게 해당하는 직급이다. 교원들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교원자격시험을 실시한다. 1, 2급 교원은 전국 통일시험을 치러야 하고 3급 이하 교원들은 각 도에서 통일적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자격교원' 증서를 얻을 수 있는 외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교원들은 통신대학에서 연수하거나 독학하여 '자격교원'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는 각기 교원자격 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력이 미달하는 교원들이 시험을 보도록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국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교원자격 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교원에게 '자격교원'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2. 북한 교원양성제도의 변화

8·15 광복 전 일제 시기에는 식민지 교

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 교육은 지극히 낙후하였다. 일제 시기 북한에는 초급사범학교가 4개, 고등사범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광복 후 북한의 교원양성 사업은 의무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등교육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교원양성제도는 크게 보아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규적인 전일제 교원양성체계로서 사범예비반, 사범전문학교(보육전문학교), 교양원대학, 교원대학, 사범대학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신대학 양성체계로서 통신대학과 대학의 야간학부 그리고 각종 단기훈련 양성반과 강습소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의 교원양성제도는 양성 단계를 중심으로 중등 사범교육과 고등 사범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등 사범교육은 초기의 양성제도로써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고등 사범교육은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단계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북한 교원양성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중등 사범교육의 발전과 개혁: 사범학교, 사범전문학교와 보육전문학교

광복 후 일제의 꺾박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들은 교육을 받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화산처럼 폭발하였다. 북한의 교육체제 정립에 따라 인민학교 교육이 급속히 확대되고, 인민학교 교원 수요가 늘어난 데 비해 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너무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인민학교 교육을 받은 주민들을 조사하고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인민학교 졸업생들과 사범예비과에서 2년 동

안 수업을 마친 자들을 모집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인민학교 교원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1947년에는 인민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집했던 사범예비과를 폐지하였다.

이어 인민학교 교원들의 수준과 자격을 높이기 위하여 사범전과학교를 신설하고, 중등학교 졸업생들을 모집하여 3년간 수업과정을 거쳐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였다. 사범전과학교는 1947년에 13개로 늘어 학생들이 7,000명에 달했으며, 1948년에는 학생이 만 명 이상에 달했다.

북한의 유아교육과 학교전교육의 발전은 비교적 일찍이 시작되었다. 기초교육이 발전해 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과 학교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도시부터 시작하여 점차 농촌, 광산, 임업 노동자가 집중된 곳까지 확대되었다. 유치원과 학교전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보육교양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가진 보육원과 교양원들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북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양원 양성을 결정하였다. 하나는 평양에 보육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일부 사범전문학교에 보육전공을 부설하여 정규적인 학교에서 보육원과 교양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임시 양성반을 설치하여 보육원과 교양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사범전과학교는 17개로 늘어났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북한은 전시교육체제로 개편하였다. 전쟁기간에 정상적인 교육체제는 파괴되었으며, 교원과 학생들이 전쟁에 참가하였지만 교원양성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1951년 북한은 우수한 교장과 교원을 파견하여 11개 사범전문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재학생 전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학교의 설비와 기숙사 조건을 개선하였다. 역시 그 해 6월에 평양에서 교육사업회의를 열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교원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파괴된 각급 학교를 복구시키라고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17개의 사범전문학교가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기간에도 사범교육사업을 지속하여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였기 때문에 전쟁 이후 교육사업을 지속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1959년 교육체계의 개혁으로 수준 높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원들이 다수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전의 사범전문학교는 새롭게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961년부터 학생을 더 모집하지 않고 재학생들만 원래 과정대로 졸업시킨 다음, 1963년에는 모집을 중지하였다. 이제 사범전문학교는 교원대학으로 승격되어 7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을 모집하여 3년 혹은 4년간 수업을 거쳐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중등학교 교원으로 양성하였다.

1963년부터 북한의 인민학교와 유치원 교양원은 교원대학을 졸업해야만 했다. 그때부터 사범교육체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967년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와 유아교육사업의 발전으로 북한에서는 교원양성체계를 조정하여 각 도에 새로이 전문 유치원의 교양원을 양성하는 고등사범학교를 설립하고, 5년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모집하였는데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고등사범학교는 후에 교양원대학으로 승격하였다.

## 2) 고등 사범교육의 발전과 개혁 : 교원대학, 보통사범대학과 기술사범대학

광복 후 북한은 중등교육의 교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1946년 7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제33번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평양과 청진에 교원대학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모집하여 2년 과정으로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북한 고등 사범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때부터 대학 수준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

1947년에는 정주에 교원대학을 설립하고(후에 신의주교원대학으로 개칭), 다음 해에는 해주교원대학을, 1949년에는 원산교원대학을 설립하였다. 1948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학과를 따로 설립한 후, 그것을 기초로 평양사범대학을 창립하였는데 이는 북한 최초의 고등사범대학이었다.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며, 학제는 3년으로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였다. 설립 당시 학생수는 160명이었고, 1950년에는 519명에 지나지 않았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후, 사범대학 학생과 교원들은 대부분 전선에 나가고 정상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범대학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수업을 계속하였다. 이 학교들은 전시의 실제조건에서 어떤 학교는 땅 위에서 수업하고, 어떤 학교는 반지하 혹은 완전한 지하에서 수업을 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인민경제 복구건설 시기에 와서야 원래의 각급 학교들이 마침내 복구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복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기술인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5년 북한은 기술교육을 강화

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많은 고등학교를 중등기술전문학교로 개편하였다.

새로운 교육체계에 부합하는 전문기술과 교원을 하루속히 양성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에 평양기술교원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는 북한 교원양성체제 중 새로운 형식으로서 그후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해 대량의 각종 기술과 교원들을 준비하였으며, 경제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중등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59년 10월 29일에 반포한 '인민교육체제의 개편에 관하여'의 법령 규정에 의하여 북한은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개혁을 진행했다.

① 1961/1962학년도부터 교원대학에서는 기술학교(7년제) 졸업생을 모집하고 학제는 3년 혹은 4년으로 하여 유치원의 교양원과 인민학교,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②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사범대학을 설립하고 기술학교 졸업생을 모집한다.

③ 1958년에 설립한 기술교원대학을 기술사범대학으로 개편하여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전문기술과 교원을 양성한다.

위와 같은 방침에 기초하여 1961년을 전후로 강계, 혜산, 개성교원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리하여 직할시와 도에 교원대학을 하나씩 설치하였다. 11개의 교원대학이 각 직할시와 도의 소재지에 분포되어 각 지방에서 수요되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 그리고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함흥, 청진, 신의주, 해주, 원산, 순천 등 지방에 6개의 사범대학을 설

립하였다. 1961년까지 양강도, 자강도, 개성시를 제외한 각 직할시와 도 지역에 사범대학을 설치하였다.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망이 급속히 늘어나는 데 적응하기 위해 1964/1965학년도부터 사범대학에서는 학생모집 규모를 두 배로 늘렸으며, 고등사범대학의 교원과 교육과학 연구원을 양성하기 위해 1964년에 평양사대와 순천사대에 박사원과 대학원을 설립하였다.

1967년 4월 1일부터 북한에서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무교육의 실시에 맞추어 교원대학은 인민학교와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제를 3년에서 4년으로 개편하고, 사범대학은 중등·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4년에서 4년 혹은 5년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북한 보통기초교육 수준의 발전에 따라 교원양성체제도 보다 높은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1968년 고등기술학교가 증가하고 직업기술과정을 담당할 교원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함흥기술사범대학을 설립하여 전적으로 중등기술학교 기초기술과목과 고등기술학교 전문과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1971년에는 평양에 평양기술사범대학을 설립하였는데, 그래도 사범대학과 기술사범대학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직업기술교육 교원에 대한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각종 기술대학에 전문과를 설치하여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였다. 그 때부터 북한의 교원양성체제는 보통기초교육 교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직업기술교육 교원도 양성하는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1972년부터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을 실험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함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교원양

성체제가 요구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원래의 교양원대학을 교원대학으로 개편하고, 원래의 교원대학을 한 급 높여 제2사범대학으로, 사범대학을 제1사범대학으로 개편 승격하도록 하였다.

11년제 의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체제를 보완 정비하였는데 1973년부터 각 도에서 2개의 사범대학과 2개의 교원대학을 설립하고, 제1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 고급반 교원을 양성하고, 제2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 중급반 교원을 양성하며, 제1교원대학은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제2교원대학은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적으로 사범대학은 24개, 교원대학은 22개에 달한다.

### 3. 북한의 현행 교원양성제도

#### 1) 교원양성기관

##### ① 보육원 양성소

보육원 양성소는 탁아소에서 일하는 보육원들을 양성하는데,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고등중학교 여자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수업연한은 1년이다. 고등중학교의 실습과정 가운데 남학생들은 목공과 자동차, 트럭 운전기술 과목을 이수하고, 여학생은 주로 수놓기, 재봉, 음식만들기 과목을 이수한다. 고등중학교 6학년의 여학생들은 유아교육을 실습 과목으로 이수하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1년 동안 보육전과 과정을 이수하면 보육원 사업에 종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학생들은 보육원 양성소에서 아동위생학, 아동심리학, 유아보육학, 인체해부학, 학교전교

육학, 영양학 등의 과정을 이수한다. 전국에 보육원 양성소는 20개 있으며, 정무원의 보건부에서 관리한다.

##### ② 교원대학

교원대학은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수업연한은 3년이다. 교원대학의 교육과정은 사회과학,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이 있다. 기초과정은 교육학, 심리학, 수학, 국어 등이 있고 전문과정은 음악, 미술, 무용, 학교전교육학, 아동심리학 그리고 각 교과목의 교육법 등이 있다.

1973년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북한은 교원 양성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도와 직할시에 2개씩의 교원대학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는 교원의 수요가 감소하고 교원교육을 '정예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제 수요에 따라 도와 직할시에 한 개 대학씩 남기도록 하여 전국에 15개의 교원대학이 있다.

##### ③ 사범대학

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고등중학교 졸업생과 제대군인 그리고 현직 교원 중에서 대학 미졸업자를 모집하고 수업연한은 4년이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제는 고등중학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도록 전문 교과목의 교원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재교육학부'가 있어 지방의 고등중학교 교원들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범대학에서는 위탁모집과 위탁배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학생, 남학생을 사범대학 예비교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원이 여성화하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우수한 고등중학교에 사범 예비과를 설치하고 우수한 남학생을 선발하여 졸업시킨 다음에는 이들

을 사범대학 본과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각 지방의 고등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되어 교육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현재 북한에는 10개의 사범대학이 있다.

#### ④ 김형직사범대학

이 대학은 1948년 북한 최초로 설립된 사범대학으로서 처음에는 평양사범대학, 그 다음에는 평양 제1사범대학으로 불리다가 1975년에 김형직사범대학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김형직사범대학은 북한의 중심적인 교원양성기관으로 정부원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수업연한은 예비과 1년, 본학부 5년을 합하여 6년이다. 이 대학은 다른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을 양성하며 계획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위탁모집과 위탁배치를 한다.

이 대학에는 현재 김일성 혁명역사, 철학, 국어문학, 교육,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외국어, 예술, 체육 등 13개 학부가 있다. 또한 예비과는 각 학부에 배속되어 있다. 특히 교육학부는 전국의 사범대학 중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학과, 학교전교육과, 심리학과의 세 개 전공이 있다.

북한의 사범대학에서 박사원을 설치한 대학은 이 학교뿐이다. 박사원에는 3년제의 준박사과정과 2년제 박사과정 그리고 1년제 특설 박사반이 있으며, 이 대학의 사범교육연구소는 북한에서 오직 하나뿐인 사범교육을 연구하는 전문연구소이다. 때문에 이 대학은 북한 사범교육의 최고이고, 제일 권위적인 사범교육 수업과 과학연구 기관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이 대학에는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위탁하여 작가를 양성하는 2년제 작가 양성반이 있다.

#### ⑤ 일반이공과대학 부설 사범과

북한에서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을 실시한 후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중등단계에서 직업기술과 교원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술사범대학도 동시에 폐지하거나 합병하였고, 고등중학교에서 필요한 직업기술과 교원의 양성은 보통공과대학교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공과대학에 사범과를 부설하고 대학의 기초과목 외에 사범전공의 핵심 과목을 보충하여 졸업한 후, 고등중학교에 기술과 교원으로 배치한다. 대학에 고등중학교 직업기술 교육과 교원을 위한 양성과목을 설치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시설이 비교적 완비되고 공과 전공 교원의 수준이 높은 대학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 대학에서 최신의 과학기술을 습득한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다.

#### 2) 북한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북한의 교원양성 교육기관은 각기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구성도 다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초 과정으로서 정치사상 과목과 교양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일성혁명역사, 주체철학, 김일성저작 등 정치과목과 수학, 인체해부학 등 자연과학 과목을 포함한다. 둘째는 교육학 과정으로서 교육학, 심리학, 교육방법론, 교육실습 등의 과목을 포함하며, 셋째는 교과 교육에 관한 과목이 있다. 이 밖에 개설되는 특별강좌도 있다. 이 세 과정의 과목 구성 비율을 보면 정치사상(15%), 교양(10%)을 합하여 기초과정은 25% 정도이며, 교육학 과정은 15%, 교과 전공 과목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 ① 교원대학의 교육과정

교원대학은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예능 분야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주로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능 과목을 중시한다. 교원대학에 설치하고 있는 주요 교과목은 김일성혁명역사, 김일성과 김정일의 아동시기, 주체철학, 교육학, 아동문학, 외국어, 각과 교수법, 음악, 무용, 미술, 교육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때문에 전공 과정은 고등중학교의 과목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학의 전공은 김일성혁명역사, 조선어문학,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체육 등 학부로 나뉘어 있다. 각 학부의 졸업생들은 보통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김일성혁명역사학부 졸업생은 고등중학교의 사로청(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혹은 소년단의 지도원을 담당한다.

사범대학의 주요 공통과정은 김일성혁명역사, 김일성과 김정일 저작, 조선노동당사, 주체철학, 교육학, 심리학, 교육심리학, 교육교양방법, 각과 교수법, 외국어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각 전공과목이 있다.

### ③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김형직사범대학은 6년제이며, 지방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관리를 양성한다. 이 대학은 김일성혁명역사, 주체철학, 교육학, 국어문학,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예술, 체육학부가 있으며, 재교육학부와 각 학부에는 예비과가 있다. 특히 이 대학에는 북한에서 유일한 교육학부가 있다. 이 학부

에는 세 가지 전공이 있는데 교육학, 학교전교육과 심리학이다. 이 교육학부의 각 학년 과정 설치는 다음과 같다.

○ 1학년 : 주로 기초과목으로서 물리, 수학, 외국어, 체육, 인체해부, 김일성혁명역사, 김일성과 김정일 저작

○ 2학년 : 학교위생학, 주체문예이론, 논리학, 사회주의교육학, 사회주의심리학, 김일성혁명역사, 김일성과 김정일 저작, 교육통계학

○ 3학년 : 사회주의아동심리학, 현대교육방법, 체육심리학, 교육행정학, 교육공학, 주체철학, 교수법, 교양방법

○ 4학년 : 학교관리학, 생산기술교육, 사회교육, 비교교육학, 사회주의경제학, 주체철학, 교육현실연구

○ 5학년 : 세계교육사, 교육사료연구, 전문과제강좌, 교육전공실습, 졸업논문 집필

북한에서 교원들은 전공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진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사상 과목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어서 정치과목의 수업 시간수가 총 수업 시간의 8분의 1 정도 차지한다. 또한 정규적인 수업시간 외에 토요일 정치학습 등 전문적인 정치학습 시간이 따로 있고 시간을 정하지 않은 정치모임과 강연도 많다. 각 대학의 '사로청' 활동도 아주 많다. 예를 들어 당의 정책 선전대를 조직하여 공장, 광산, 기업과 농장, 가도에 내려가서 강좌, 자문, 문예연출 등의 방식으로 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설명하기도 한다.

교육과정 상에서 학과의 발전에 따라 교과목을 새롭게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비교교육학은 처음에 특강으로 설치되었으나 뒤에 전공과목에 포함되었다.

#### 4. 북한의 교원임용제도

현재 북한에서는 도와 직할시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자족적인 교육체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방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지로 삼고 있다. 특히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각 지방의 수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위탁모집과 위탁배치를 실시한다. 김형직사범대학은 전국의 각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교수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의 학생을 모집하는데, 주로 지방 학생을 모집하여 졸업한 이후에는 출신 지방에 배치하는 위탁모집과 위탁배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교육의 발전에 따라 교원의 자질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1967년 9월부터 전국 범위에서 정규적인 교원양성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정규 사범대학을 나오지 못한 교원은 이에 상응하는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임용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 ① 학력제도

인민학교 교원과 고등중학교 교원은 반드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기타 대학 졸업생은 사범교육 전공의 주요 과목을 이수해야 교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교원자격검정시험제도

이는 앞에서 소개하였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다.

##### ③ 교원진급시험제도

각급 각 종류의 교원진급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원은 일률적으로 업무 수준과 학력에 의해 5급으로 나눈다. 사범대학 졸업자는 3급 교원으로 정하고(‘자격교원’이라고 한다), 교원대학 졸업자는 4급 교원으로 정하며,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통 5급으로 정한다. 그 후 시험을 거쳐 한 급씩 올라갈 수 있다.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 교직에 종사한 지 매 5년마다 한번 진급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한 급수 오를 수 있다.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모두 세 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세 번만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이 취소되거나 급수를 내리게 된다. 월급은 급수에 따라 결정된다.

#### 5. 북한 교원의 재교육

북한에서는 교원에 대한 재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체제’에서는 교원에 대한 재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즉, “현직 교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제를 세우고 현직 교원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워야 한다. 사범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교수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교수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 재교육은 교원 재교육 강습소에서 맡는다. 교원 재교육 강습소는 평양에 중앙 교원 재교육 강습소가 있으며 이 기관은 교육과학원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앙 교원 재교육 강습소 산하에 도, 시, 군 단위로 강습소가 설치되어 있다. 교원에 대

한 재교육은 교원강습, 정기국가시험, 통신교육 등의 방식이 있다.

첫째, 교원강습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재교육으로서 주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고 있다. 교원강습에서는 각 과목의 새로운 교육내용을 보충하여 교수하거나 교수방법도 소개한다. 교과에 관한 강습 이외에 컴퓨터 강습과 같은 특별강습도 있다.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원강습에 참가하도록 하고, 강습이 끝난 뒤에는 교수내용을 수업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교원강습은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교원 재교육 강습소에서 담당한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는 재교육 학부에서 무자격 교원에 대한 재교육을 담당하여 자격을 얻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3년부터 5년이 되면 모든 교원들이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정기시험제도는 3년에 한 번 시험을 실시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국가시험은 교원들의 정치사상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 본 진급시에 적용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국가시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험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학교 현장의 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재교육 과정이 있다. 여기에는 교수강연, 교수토론회, 논문발표회, 시범상학, 현장연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술토론회, 과학논문 발표회, 경험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시범상학은 수업연구, 수업

발표회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교사가 교과수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다른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통신교육은 비교적 단기간에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교원들은 각자의 학습 계획에 따라서 통신학습을 통하여 재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는 그들의 학습조건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자격시험을 보는 교원들은 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교에서 충분히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1967년에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원은 반드시 정규적인 고등교육 단계의 교원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교원들은 대학교육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통신교육은 대학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수 자질과 자격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

---

한만길/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강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교육이란 무엇인가』,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손계림/중국 동북사범대학 정치교육학부를 졸업하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 유학하였으며, 현재 중국 동북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전후 한국교육 연구』, 『북한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 외 다수가 있다.